

[57] 9월

초 1일(기축) 맑음. 내가 벽파정(碧波亭) 위에 내려가 앉았는데 점세(占世)가 제주(濟州)에서 소 5마리를 싣고 와 바쳤다.

초 2일(경인) 맑음. 배설(裴楔)이 도망쳤다.

초 3일(신묘) 아침에 날이 맑더니 저녁에 비가 뿌렸다. 밤에는 북풍이 불었다.

초 4일(임진) 날이 맑았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겨우 보전했다.

초 5일(계사) 맑음. 북풍이 크게 불었다.

초 6일(갑오) 맑음. 바람기가 조금 가라 앉았으나 추위가 스며드니 격군들 때문에 걱정스러웠다.

초 7일(을미) 맑음. 탐방 군관 임중형(林仲亨)이 와서 보고하되, 「적선 55척 중에 13척이 벌써 어란포(於蘭浦 *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앞바다에 와 닿았는데, 아마 그 뜻이 우리 수군에 있는 것이겠다」 하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군령을 내려 재삼 신칙(申飭)했다. 오후 4시께 적선 12척이 과연 대들었다. 우리 배들이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적선을 추격하니, 적선을 뱃머리를 돌려 도망했다. 멀리 바다 밖까지 쫓아가다가 바람과 조수가 모두 역류요, 또 북병선이 있을 우려도 있어 더 쫓아가지 않았다. 벽파정으로 돌아와서 여러 장수들 불러 모아 약속하되, 「오늘 밤에는 반드시 적의 야습(夜襲)이 있을 것이니 모두 장수들은 미리 알아서 준비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군법대로 시행하리라」 하고 재삼 타일러 경계하게 하고 헤어졌다. 밤 8시에 적이 과연 야습을 해와 탄환을 많이 쏘고 덤비었다. 내가 탄 배가 바로 앞장을 서서 지자포(地子砲)를 쏘니 강산이 흔들렸다. 적들도 범할 수 없음을 알고 네번 왔다 물러갔다 하면서 화포만 쏘다가 자정이 지나서는 아주 물러갔다.

초 8일(병신) 맑음.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대책을 토의하였다. 우수사 김억추(金億秋)는 겨우 만호(萬戶)에나 맞을까 대장 재목은 못 되는 인물인데,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이 서로 정다운 사이라고 해서 억지로 임명해 보냈다. 이려고야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다만 때를 못만난 것을 한탄할 뿐이다.

초 9일(정유) 맑음. 이날은 9일(* 중양절-重陽節)이라 1년중 명절이므로 나는 상젯 몸이지 마는 여러 장병들이야 먹이지 않을 수 없어 제주서 나온 소 5마리를 녹도(鹿島 * 송여종-宋汝宗), 안골포(安骨浦 * 우수-禹壽) 두 만호에게 주어 장사들을 풀어 먹이도록 지시하였다. 늦게 적선 2척이 어란(於蘭)으로 부터 바로 감보도(甘甫島)로 와서 우리 수군의 많고 적은 것을 정탐하려고 하므로 영등(永登) 만호 조계종(趙繼宗)이 바짝 추격해서 쫓아가자 적들은 당황해서 배에 실었던 물건을 모두 바다 가운데 던져 버리고 달아났다.

초10일(무술) 맑음. 적선이 멀리 도망갔다.

11일(기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았다. 홀로 배 위에 앉아 어머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 지었다. 천지간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회()는 내 심정을 알고 몹시 언짢아 하였다.

12일(경자) 온종일 비가 뿌렸다. 배 뚝 아래 앉아서 심회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13일(신축) 맑았으나 북풍이 크게 불어서 배가 안전할 수 없었다. 꿈이 이상도 했다. 임진년중 승전할 때의 꿈과 대강 같았다. 이 무슨 징조할까.

14일(임인) 맑음. 북풍이 크게 불었다. 벽파정 맞은편에서 연기가 오르기에 배를 보내서 싣고 오니 바로 임준영(任俊英)이었다. 그가 정탐해 결과를 보고하기를 「적선 2백여 척 가운데 55척이 먼저 어란(於蘭)으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돌아온 김중걸(金仲傑)이 전하는데, 중걸이 이달 초 6일 달야의산(達夜依山)에서 왜적에게 붙잡혀서 묶여 가지고 왜선에 실렸던 바 다행히 임진년에 포로된 김해(金海) 사람을 만나 왜장에게 빌어서 결박을 풀고 같은 배에서 지낼 수 있었다. 한밤중, 왜놈들이 깊이 잠들었을때 그 김해 사람이 귀에다 대고 몰래 이야기하기를 「왜놈들이 모여 의논하는 말들이 「조선 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추격해서 혹은 쏘아 죽이고 또 배를 불태웠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다. 각처의 배를 불러 모아 합세해서 조선 수군을 섬멸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곧장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곧 전령선(傳令船)을 보내서 피란민들을 타일러 육지로 올라가게 하였다.

15일(계묘) 맑음.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을 우수영(右水營 *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앞 바다로 옮겼다. 그것은 벽파정 뒤에 명량(鳴梁)이 있는데, 수효적은 수군으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약속하되,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으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시행해서 작은 일일망정 용서치 않겠다」고 엄격히 약속하였다. 이날 밤 신인(神人)이 꿈에 나타나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고 하였다.

16일(갑신) 맑음. 이른 아침에 특별 경찰부대가 보고하기를 「적선이 수효를 알 수 없도록 많이 명량(鳴梁)으로 해서 곧장 우리가 진치고 있는 곳을 향해 들어온다」고 하였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1백 30여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적하는 것이라 스스로 낙심하고 모두 회피할 꾀만 내는데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벌써 2마장 밖에 나가 있었다. 나는 노를 바빠 저어 앞으로 돌진하며 지자(地字), 현자(玄字) 등 각종 활통을 마구 쏘니 탄환은 폭풍우 같이 쏟아지고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뒀다 물러갔다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얼굴빛이 질렸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되,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치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동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서 적을 쏘아라」하고 여러 장수의 배들을 돌아보니 먼 바다에 물러가 있는데, 배를 돌려 군령을 내리자 해도 적들이 내리는 기(旗)를 세우라고 하고, 또 초요기(招搖旗)를 세웠더니 중군장(中軍將)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김응함(金應)의 배가 차츰 내 배 가까이 왔으며, 거제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를 불러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나, 네가 군법에 죽고 싶느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하니 안위도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했다. 또 김응함을 불러 「너는 중군(中軍)으로서 멀리 하라고 대장을 구원하지 않으니 죄를 어찌 면한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 하였다. 그래서 두 배가 적진을 향해 앞서 나가자 적장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2척에 지령하여 일시에 안위의 배에 개미 불듯하여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니 안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혹은 모난 몽둥이로, 혹은 긴창으로, 또 흑 수마석(水磨石) 덩어리로 무수히 치고 막다가 배 위의 사람이 기진 맥진하므로,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 들어가서 빗발치듯 마구 쏘아댔다. 적선 3척이 거진 다 덮여지고 자빠졌을때 녹도 만호(鹿島萬戶) 송여종(宋汝淙)과 평산포 대장(平山浦大將) 정응두(丁應斗)의 배가 뒤쫓아 와서 합력해 쏘아 죽여 적은 한 놈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투항한 왜인 준사(俊沙)는 안골(安骨)있는 적진으로부터 항복해온 자인데, 내 배위에 있다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굽어 보더니 그림 무늬 놓은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안골 있던 적장 마다시(馬多時 * 내도통총-來島通總인가?)라고 말했다. 내가 무상(無上 * 물건 군사) 김돌손(金玆孫)을 시켜 갈구리로 낚아 올린즉 준사(俊沙)가 좋아 날뛰면서 「그래 마시다다」하고 말하므로 곧 명령하여 토막토막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크게 꺾였다. 우리 배들은 적이 다시 범하지 못할것을 알고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 들어가 지자(地字), 현자(玄字), 대포를 쏘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 적선 31척을 깨뜨리자 적선은 퇴각하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싸움하던 바다에서 그대로 정박하고 싶었으나 물결도 몹시 험하고 바람도 역풍이라 형세 또한 위태롭고 외로와 당사도(唐 島 * 무안군 암태면-岩泰面)로 옮겨가서 밤을 지냈다. 이번 일은 참으로 천행이었다.

17일(을사) 맑음. 어외도(於外島 * 무안군 지도면-務安郡 智島面)에 이르니 피란선 무려 3백여척이 먼저 와 있었다. 나주 진사(羅州進士) 임선(林), 임환(林) 임업(林業)들이 보러왔다. 우리 수군이 크게 승첩한 것을 알고 서로 다투어 치하하며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18일(병오) 맑음. 그대로 어외도(於外島)에서 머물렀다. 내 배에 탔던 순천 감목관(順天 監牧官) 김탁(金卓)과 영노(營奴) 계생(戒生)이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고, 박영남(朴永男), 봉학(奉鶴) 및 강진(康津) 현감 이극신(李克新)도 탄환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19일(정미) 맑음. 일찌기 떠나 행선(行船)했다.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도 순하여 무사히 칠산 바다(七山 * 영광군 낙원면)를 건넜다. 저녁에 법성포(法聖浦 * 영광군 법성면)에 이르니 흉악한 적들이 육지로 해서 들어와 인가 곳곳에 불을 질렀다.

20일(무신) 맑음. 새벽에 떠나 바로 위도(蟬島 * 영광군 위도면)에 이르니 피란선이 많이

달아 있었다. 황득중(黃得中)과 종 금이(金伊)를 보내서 종 윤금(允金)을 찾아 보라 했더니 과연 위도 밖에 있었으므로 묵었다가 배에 실었다. 이광축(李光軸) 광보(光輔)가 보러 왔고, 이지화(李知和) 부자도 왔다. 해가 저물어 머물어 잤다.

21일(기유) 맑음. 일찍 떠나서 고군산도(古群山島 * 옥구군 미면 선유도)에 이르렀다. 호남 순찰(湖南巡察)이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급히 옥구(沃溝)로 갔다고 한다. 늦게 광풍이 크게 불었다.

22일(경술) 맑았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머물었다. 나주목사 배응경(裵應敬), 무장(茂長) 원 이람(李覽)이 보러 왔다.

23일(신해) 맑음. 승첩에 관한 장계 초본을 수정했다. 정희열(丁希悅)이 보러 왔다.

24일(임자) 맑음. 몸이 좋지 못해서 신음하였다. 김홍원(金弘遠)이 보러 왔다.

25일(계축) 맑음. 이날 밤, 몸이 몹시 좋지 못하고 허한이 온몸에 배었다.

26일(갑인) 맑음. 몸이 좋지 않아 종일 나가지 않았다.

27일(을묘) 맑음. 송한(宋漢), 김국(金國), 배세춘(裵世春)들이 승첩한 장계를 가지고 뱃길로 올라갔다. 정제(鄭霽)는 충청 수사 처소로 부찰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가지고 같이 갔다.

28일(병진) 맑음. 송한, 정제가 바람에 막혀 돌아왔다.

29일(정사) 맑음. 장계와 정판관(鄭判官)이 도로 올라갔다.

[58] 10월

초 1일(무오) 맑음. 아들 회()를 보내서 저의 모친도 보고 집안 여러 사람의 생사도 알아 오게 하였다. 심회가 극히 산란하여 편지를 쓸 수 없었다. 병조(兵曹)의 역자(驛子)가 공문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산(牙山)집이 적에게 분탕질 당해 잣더미가 되어 남은 것이 없다고 한다.

초 2일(기미) 맑음. 아들 회가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잘 갈지 모르겠다. 심회를 어찌다 말하랴.

초 3일(경신) 맑음. 새벽에 배를 띄워서 법성포(法聖浦)로 돌아왔다.

초 4일(신유) 맑음. 그대로 머물었다. 임선(林), 임업(林)들이 사로 잡혀 갔다가 적에게 빌어 임치(臨淄)로 돌아와서 편지를 보냈다.

초 5일(임술) 맑음. 그대로 머물게 되어 마을 집으로 내려가서 잤다.

초 6일(계해) 흐리고 또 간혹 눈비가 흩뿌렸다.

초 7일(갑자) 바람이 고르지 않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들으니 호남 안팎에 모두 적의 자취가 없다고 한다.

초 8일(을축) 맑고 바람이 순했다. 배를 띄워서 어외도(於外島)에 이르러 잤다.

초 9일(병인) 맑음. 일찍 떠나 우수영(右水營 * 남해군 문내면)에 이르니 성 안팎에 인가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인적이 없어 보기에 참담했다. 저녁에 들으니 흉칙한 적들이 해남에 진을 쳤다고 한다. 날이 막 어두워질 무렵에 김종려(金宗麗), 정조(鄭詔) 백진남(白振男)들이 보러 왔다.

초10일(정묘) 새벽 2시쯤에 비가 뿌리고 북풍이 크게 불어서 배를 띄울 수 없어 그대로 머물었다. 밤 10시께 중군장(中軍將) 김응함(金應)이 와서 해남(海南)있는 적들이 퇴각한 현상이 많다고 전했다. 이희급(李希級)이 부친이 적에게 사로잡혔다가 빌어서 놓여 왔다고 한다. 몸이 불편해서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밤을 새웠다. 우우후(右虞候) 이정충(李廷忠)이 배에 왔으나, 보지 않은 것은 도망하여 외도(外島)에 있었기 때문이다.

11일(무진) 맑음. 새벽 2시께 바람이 자는 것 같았으므로 비로서 닻을 들고 바다 가운데 이르러 정탐인 이순(李順), 박담동(朴淡同), 박수환(朴守還), 태귀생(太貴生)들을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에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하니 필시 적의 무리가 달아나면서 불을 지른 것이리라. 낮에 안편도(安便島 * 발음도-發音島)에 이르렀는데 바람도 좋고 날씨도 화창했다. 배를 내려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배를 감추어 돌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동쪽은 앞에 산이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 없으나 북쪽으로는 나주(羅州)와 영암(靈巖)의 월출산(月出

山)까지 터졌고 서쪽으로는 비금도(飛禽島)까지 통하여 눈 앞이 시원했다. 이윽고 중군장(*김응함)과 우치적(禹致績)이 올라오고 조효남(趙孝南), 안위(安衛), 우수(禹壽)가 잇따라 왔다 날이 저물어 산에서 내려와 언덕에 앉았는데, 조계종(趙繼宗)이 와서 왜적의 정세를 말하고, 또 왜들이 수군을 몹시 겁낸다고 말했다. 이희급(李希偈)이 부친이 보러 와서 포로되었던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마음 아픔을 견딜 수 없었다. 저녁엔 따듯한 날씨가 마치 봄과 같아 아지랑이가 하늘에 아른거리고, 비가 내릴 징조가 많았다. 초저녁에 달빛이 비단결 같아 홀로 뜰집에 앉았으니 화포가 만 갈래였다. 밤 10시께 허한이 몸을 적셨다. 자정에 비가 내렸다. 이날 우수사가 군량선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가다 무릎을 몹시 때렸다고 한다. 놀랄 일이었다.

12일(기사) 비가 죽죽 내리다가 오후 2시쯤에 말짱히 개었다. 아침에 우수사가 제 하인 무릎친 죄를 사과하였다. 가리포(加里浦 *이응표-李應彪), 장흥(長興 *전봉-田鳳)들의 여러 장수가 와서 절하고 종일토록 이야기했다. 정찰선이 나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 걱정스러우나, 아마 생각컨대 흥착한 적도들이 멀리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가느라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리라. 놀러 발음도에 머물렀다.

13일(경오) 맑음. 아침에 배 조방장(裒助防將 *흥립-興立)과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가 보러 왔다. 이윽고 정찰선이 임준영(任俊英)을 싣고 왔다. 그 편에 적의 정세를 들으니 해남(海南)으로 들어와 웅거했던 적들이 초 10일에 우리 해군이 내려 오는 것을 보고 11일에 모두 도망했는데, 해남 향리(海南鄉吏) 송언봉(宋彦逢)과 신용(愼容)들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왜놈을 꺾어 내어 지방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하니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그래서 곧 순천 부사(順天府使) 우치적(禹致績) 금갑(金甲), 만호 이정표(李廷彪), 제포(齊浦) 만호 주의수(朱義壽), 당포(唐浦) 만호 안이명(安以命), 조라(助羅), 만호 정공청(鄭公淸) 및 군관 임계형(林季亨), 정상명(鄭相溟), 봉좌(逢佐), 태귀생(太貴生), 박수환(朴壽還)등을 해남으로 보냈다. 늦게 언덕에 내려앉아 배 조방장과 장흥(長興) 부사 전봉(田鳳)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날 우수영 우후 이정충(李廷忠)이 뒤떨어진 죄를 다스렸다 우수사 군관 배영수(裒永壽)가 와서 보고하기를 수사의 부친이 바깥 바다로부터 살아 돌아왔다. 이날 새벽 꿈에 우의정(右議政)을 만나 조용히 이야기 하였다. 낮에 들으니 선전관(宣傳官) 네 사람이 법성포(法聖浦)에 내려와 대었다고 한다. 저녁때 중군(中軍) 김응함(金應)에게서 들으니, 섬 안에 누구인지 모르나 산골에 숨어서 소와 말을 잡아 죽인다고 하므로 황득중(黃得中), 오수(吳守)들을 보내어 수색하게 하였다. 이날 밤 달빛은 비단결 같고 바람 한점 없는데 혼자 뱃전에 앉아 심회를 달래지 못하였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앉았다 누웠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따름이었다.

14일(신미) 맑음. 새벽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헛디디어 내(川)가운데 떨어지긴 했으나 거꾸러지지는 않았는데 끝에 아들 면()이 앞드려 나를 안는 것 같은 형상을 보고 깨었다.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늦게 배 조방장과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보러 왔다. 배(裒)의 종이 경상도로부터 와서 적의 형세를 전하였다. 황득중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종 강막지(姜莫只)라는 자가 소를 많이 치기 때문에 12마리를 끌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天安)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어지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곁봉을 대강 뜯고 열(悅 *둘째아들)의 글씨를 보니 거죽에 「통곡」 두 자가 씌어 있어 면()의 전사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시려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 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는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울고 싶건마는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지는 참고 연명이야 한다마는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 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밤 9시께 비가 내렸다.

15일(임신) 종일 바람과 비.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종일 뒹굴었다. 여러 장수들이 위문하러 오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대하라. 임흥(林), 임중형(林仲亨), 박신(朴信)은 적세를 살피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흥양(興陽), 순천(順天) 앞 바다로 나갔다.

16일(계유) 맑음. 우수사와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김응함)를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 원유형(柳珩)도 보냈다. 나는 내일이 끝의 아들의 부음을 들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 마음놓고 울어 보지도 못했으므로 염한(鹽于) 강막지(姜莫只)의 집으로 갔다. 밤 10시에 순천부사

(우치적), 우후 이정충(李廷忠), 금갑(金甲 * 이정표-李廷彪), 제포(齊浦 * 주의수-朱義壽)들이 해남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왜적 13명과 적진에 투항해 들어갔던 송언봉(宋彦逢)들이 머리를 베어 왔다.

17일(갑술) 맑았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흰 띠를 띄고 향을 피우고 곡했다. 비통함을 어찌 참으랴. 우수사가 보러 왔다.

18일(을해) 맑고 바람도 자는 것 같았다. 우수사는 배를 부릴 수가 없었다. 강막지(姜莫只)가 보러 왔다. 임계형(任季亨), 임준영(任俊英)이 보러 왔다. 자정에 꿈을 꾸었다.

19일(병자) 맑음. 새벽에 고향 집의 중(辰)이 내려왔기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여 통곡하는 꿈을 꾸었다. 늦게 조방장과 경상 우후가 보러 왔다. 백진사(白進士 * 백진남-白振男)가 보러 왔다. 임계형이 보러 왔다. 김신웅(金信雄)의 아내, 이인세(李仁世), 정억부(鄭億夫)를 붙잡아 왔다. 거제, 안골포 녹도, 웅천(* 김충민-金忠敏) 제포, 조라포(助羅浦), 당포(唐浦)와 우수후가 보러 왔다. 적을 잡은 공문을 가져와 바쳤다. 윤건(尹健)들 형제가 적에게 붙었던 자 2명을 붙잡아 왔다. 어둠 무렵에 코피를 되 남짓이나 흘렸다. 밤에 앉아 생각하고 눈물 짓고 하였다. 이제는 영령이나 불효가 여기까지 이를 줄은 어떻게 알았으랴. 비통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누를 길이 없다.

20일(정축) 맑고 바람도 잤다. 이른 아침에 미조항 첨사, 해남, 강진 현감이 해남의 군량 운반할 일로 돌아간다 아뢰고, 또 안골 만호 우수(禹壽)도 돌아간다고 아뢰었다. 늦게 김종려(金宗麗), 정수(鄭遂), 백진남(白振男)이 보러 와서 윤지눌(尹志訥)의 고약한 짓을 말하였다. 김종려를 소음도(所音島)등 13섬의 염장(鹽場)의 감자도 감검(監煮都監檢)으로 정해 보냈다. 영속(營屬) 사화(士化)의 모친이 배 속에서 죽었다 하기에 곧 매장하도록 군관에게 일렀다. 남도포(南桃浦 * 강응표-姜應彪), 여도(* 김인영-金仁英) 두 만호가 와 보고 돌아갔다.

21일(무인) 새벽 2시께 비가 오다 눈이 오다 했다. 바람이 몹시 차가와 뱃사람들이 얼고 떨 것을 염려하여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다. 오전 8시부터는 바람과 눈이 크게 불어쳤다. 정상명(鄭相溟)이 와서 보고하기를 무안현감(務安縣監) 남언상(南彦祥)이 들어 왔다고 한다. 언상은 본시 수군에 소속된 관원인데, 제 몸만 보존하려는 계책으로 수군에 오지 않고 몸을 산 골에 숨긴지 달포가 넘더니 이제 적이 물러간 뒤에야 무거운 벌을 받을까 겁내어 비로서 나타나니 그 하는 짓이 극히 해괴하다. 늦게 가리포(加里浦) 및 배 조방장(裒助防將) 우후(虞候)들이 와서 절하였다. 종일 바람과 눈이 내렸다. 장흥(長興)이 와서 잤다.

22일(기묘) 아침에 눈이 오고 늦게 개었다. 장흥과 아침을 같이 먹었다. 오후에 군기직장(軍器直長) 선기룡(宣起龍) 등 세사람이 유지(有旨)와 의정부(議政府)의 방문(榜文)을 가지고 왔다. 해남현감(海南縣監 * 유형-柳珩)이 적에게 붙었던 윤해(尹海) 김언경(金彦京)을 결박지어 올려 보냈기로 나장(羅將)들 있는 곳에 단단히 가두라고 하였다. 무안 현감 남언상은 가리포 전선(戰船)에 가두었다. 우수사가 황원(黃原)으로부터 와서 김득남(金得男)을 처형하였다고 했다. 진사(進士) 백진남(白振南)이 와 보고 돌아갔다.

23일(경진) 맑음. 늦게 김종려(金宗麗), 정수(鄭遂)가 보러 왔다. 배 조방장(* 경남-慶南) 및 우후(* 이의득-李義得), 우수우후(右水虞候 * 이정충-李廷忠)도 왔다. 적량(赤梁), 영등만호(* 조계종-趙繼宗)도 뒤미처 왔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이날 낮에 윤해(尹海), 김언경(金彦京)을 처형했다. 대장장이 허막동(許莫同)을 나주(羅州)로 보내려고 밤 9시경에 종을 시켜 부른 즉, 배가 아프다고 하였다. 전마(戰馬)의 편자가 떨어진 것을 고쳐 박았다.

24일(신사) 맑음. 해남(海南) 입던 왜의 군량 3백 22석을 실어 왔다. 초저녁에 선전관 하응서(河應瑞)가 유지(有旨)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후 이몽구(李夢龜)를 처형하라는 것이었다. 그편에 들으니 명(明)나라 수군이 강화(江華)에 도착했다고 한다. 밤 10시께 땀을 내어 등을 적시고 자정에야 그쳤다. 새벽 3시쯤에 또 선전관과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도착하였다고 한다. 날이 환히 밝은 후에 들어왔는데, 선전관은 권길(權吉)이요. 금오랑(今吾郎 *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은 훈련 주부(訓練主簿) 홍지수(洪之壽)였다. 무안 원과 목포(* 방수경-方守慶)와 다경포(多慶浦 * 윤승남-尹承男) 만호 등을 잡으러 온 것이다.

25일(임오) 맑음. 몸이 몹시 불편했다. 윤연(尹連)이 부안(扶安)으로부터 왔다. 종 순화(順化)가 배를 타고 아산(牙山)으로부터 온 편에 집안 편지를 받아 보았다. 심회가 편치 못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혼자 앉아 있었다. 초저녁에 선전관 박희무(朴希茂)가 유지(有旨)를 가지고 왔는데, 명나라 수군의 배가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생각해서 곧 장계(狀啓)하라는 것이었다. 양희우(梁希雨)가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돌아왔다.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

男)가 편지와 함께 홍시 한 점을 보내 왔다.

26일(계미) 새벽에 비가 뿌렸다. 조방장들이 와서 보았다. 김종려(金宗麗), 백진남(白振南), 정수(鄭遂)들도 보러 왔다. 이날 밤 식은 땀이 몸을 적시었다. 온돌이 너무 더웠던 까닭이었다.

27일(갑신) 맑음. 영광(靈光) 군수(*전협-田狹)의 아들 전득우(田得雨)가 군관이 되어 현신하였으나 곧 그 부친이 있는 곳으로 돌려 보냈다. 홍시 백개를 가지고 왔다. 밤에 비가 뿌렸다.

28일(을유) 맑음. 아침에 여러 가지 장계를 봉해서 피은세(皮銀世)에게 주어 보냈다. 늦게 강막지(姜莫知)의 집으로부터 지휘선으로 옮겨 탔다. 저녁에 염장(鹽場) 의도 서원(都書員) 걸산(巨叱山)이 큰 사슴을 잡아 바치기에 군관들에게 나누어 나누어 먹게 하였다. 이날 밤 바람 한 점 없었다.

29일(병술) 맑음. 새벽 2시 첫 나발을 불어 배를 띄워 목포(木浦)로 향했다.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고 동풍이 약간 불었다. 목포에 이르러서 보화도(寶花島 *고하도-高下島)에 옮겨 댕 즉, 서북풍을 마음직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하였다. 그래서 육지로 내려 섬 안을 돌아보니 지형이 아주 좋으므로 진을 머무르고 집 지을 계획을 세웠다.

30일(정해) 맑으나 동풍이 불고 비 올 기세가 많았다. 아침에 집 지을 곳에 내려가 앉았으니 여러 장수들이 보러 왔다. 해남 원(海南 *유형-柳珩)도 와서 적에게 붙었던 자들의 짓을 전했다. 일찌기 황득중(黃得中)을 시켜 목수를 데리고 섬북쪽 산밑에 가서 집 지을 재목을 찍어 오게 하였다. 늦게 적에게 붙었던 해남의 정은부(鄭銀夫)와 김신웅(金信雄)의 계집 등, 왜놈을 지시하여 우리 사람을 죽인 2명과 선비의 집 처녀를 강간한 김애남(金愛南)을 모두 목베어 효시하였다. 저녁에 양밀(梁謐)이 도양장(道陽場)의 별레먹은 곡식을 제멋대로 나눠 준 일로 곤장 60대를 때렸다.

[59] 11월

초 1일(무자) 비, 비. 아침에 사슴 털가죽 두 장이 물에 떠내려 왔으므로 명나라 장수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상한 일이다. 오후 2시께 비는 개었으나 북풍이 크게 불어 뱃사람들은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나도 웅크리고 배 밑창 방에 앉아 있노라니 심회가 편안치 않아 하루 해를 지남이 1년 같았다. 비통함을 어찌 다 말하랴. 저녁에 북풍이 크게 불어 밤새도록 배가 흔들려 사람이 안정할 수 없었다. 땀이 나 온 몸진 적셨다.

초 2일(기축) 흐리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일찍 들으니 우수사의 전선이 바람에 떠내려 가다가 바위에 걸려 깨졌다고 한다. 참 통분한 일이었다. 병선 군관(兵船軍官) 당언량(唐彦良)을 곤장 80대 쳤다. 선창에 내려가 앉아 다리 놓는 것을 감독했다. 그 길로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어두워서 배로 내려왔다.

초 3일(경인) 맑음. 일찍 새집짓는 데로 올라가니 선전관(宣傳官)이 이길원(李吉元)이 배설(褻楔) 처단할 일로 들어왔다. 배(裵)는 벌써 성주(星州) 본 집으로 갔는데 그리고 안 가고 바로 이리로 왔으니 그 사정 보아 주는 죄가 크다. 녹도의 배로 보냈다.

초 4일(신묘) 맑음. 일찍 새집짓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길원이 머물렀다. 진도(珍島) 군수 선의문(宣義問 *전서에는 宣義卿)이 왔다.

초 5일(임진) 맑고 따듯하기 봄날 같았다. 일찍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해가 저물어서 배로 내려왔다. 영암(靈岩) 군수 이종성(李宗誠)이 와서 밥 서른말을 지어 일군들을 먹이고, 또 말하되, 군량미 2백섬과 벼 7백섬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날 보상과 흥양을 시켜 군량 곳간 짓는 것을 보살피게 했다.

초 6일(계사) 맑음. 일찍 새집 짓는 데로 올라가서 종일 거닐며 해지는 줄을 몰랐다. 새집 지붕을 이고 군량 곳간도 세웠다. 전라 우수사 우후는 나무 찍어 올 일로 황원장(黃原場)으로 갔다.

초 7일(갑오) 맑고 따듯했다. 아침에 해남(海南) 의병(義兵)이 왜인의 머리 하나와 환도(環刀) 한 자루를 가져와 바쳤다. 이종호(李宗浩)와 당언국(唐彦國)을 잡아 왔기로 거제(巨濟)배에 가두었다. 늦게 전 홍산(鴻山) 윤양현(尹英賢)과 생원(生員) 최집(崔集)이 보러 오며 군량 벼 40섬과 쌀 8섬을 바쳤다. 며칠동안의 양식으로 도움될 만했다. 본영 박주생(朴注生)이 왜의 머리 2개를 베어 왔다. 전현령 김응인(金應仁)이 보러 왔다. 이대진(李大振)의 아들 순

생(順生)이 윤영현(尹英賢)을 따라 왔다. 저녁에 새집의 마루를 다 놓았다. 여러 수사들이 보러 왔다. 이날 밤 자정께 면()이 죽는 꿈을 꾸고 슬피 울었다. 진도 군수가 돌아갔다.

초 8일(을미) 맑음. 새벽 2시께 꿈에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다. 이날은 날이 따듯 하고 바람도 없었다. 새방 벽에 흙을 발랐다. 이지화(李至和) 부자가 보러 왔다. 마루를 만들었다.

초 9일(병신) 맑고 따듯하기 봄날 같았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강진원(康津 * 송상보-宋尙甫)이 고을로 돌아갔다.

초10일(정유) 눈비가 섞여 내리고 서북풍이 크게 불어 간신히 배를 건넜다. 이정충(李廷忠)이 와서 장흥(長興)에 있던 적들이 달아났다고 했다.

11일(무술) 밝고 바람도 풀이 죽었다. 식후 새집에 올라가니 새 평산 만호(平山 萬戶)가 도임장(到任狀)을 바쳤다. 그는 하동 현감(河東縣監 * 신진-申秦)의 형 신훤(申萱)이다. 전하는 말이 숭정(崇政)으로 가자하는 것이 이미 발행되었다고 한다. 장흥(長興)과 배 조방장(* 흥립-興立)이 보러 왔다. 저녁에 우후 이정충이 왔다가 오후 8시께 돌아갔다.

12일(기해) 맑음. 이날 늦게 영암(靈岩), 나주(羅州) 사람들에게 타작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결박지어 왔으므로 그 중 주모자를 가려 처형하고 남은 4명을 각 배에 가두었다.

13일(경자) 맑음.

14일(신축) 맑음. 해남 원유형(柳珩)이 와서 윤단중(尹端中) 무리한 일을 많이 전했다. 또 말하기를 「해남의 아전이 법성포(法聖浦)로 피난갔다가 돌아올 때 바람을 만나 구조하기는 커녕 도리어 배안의 물건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군(中軍) 배에 가두었다. 김인수(金仁守)는 경상도 수영(水營) 배에 가두었다. 내일은 큰 제삿날이라 나가지 않겠다.

15일(임인) 맑고 따듯하기 봄날 같았다. 식후에 새집에 올라 갔다. 늦게 임환(林)과 윤영현(尹英賢)이 보러왔다. 이날 밤 송한(宋漢)이 서울로부터 들어왔다.

16일(계묘) 맑음. 아침에 조방장, 장흥 부사(*전봉-田鳳) 및 진중에 있는 여러 장수가 모두 보러 왔다. 군공 마련기(軍功磨鍊記 * 개인별 전공조사 기록)를 보니 거제 현령 안위(安衛)가 통정(通政)이 되고 그 나머지도 차례 차례 벼슬을 받았으며 내게는 은자(銀子) 20냥을 상금으로 보냈다. 명나라 장수 양경리(梁經理)가 붉은 비단 한 필을 보내면서, 「배에다 패홍(掛紅)하는 예식을 올리고 싶으나 길이 멀어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영의정(*유성룡)의 답장도 왔다.

17일(갑진) 비, 비. 양경리의 차관(差官)이 초유문(招諭文)과 면사첩(免死帖)을 가지고 왔다.

18일(을사) 맑고 따듯하기 봄날과 같았다. 윤영현(尹英賢)이 보러 왔고 정한기(鄭漢起)도 왔다. 땀이 났다.

19일(병오) 흐림. 배 조방장과 장흥이 보러 왔다.

20일(정미) 비, 비. 바람, 바람. 임준영(任俊英)이 와서 완도(莞島)를 정탐한 즉 적선이 없다고 전했다.

21일(무신) 맑음. 송응기(宋應璣)들이 산역군(山役軍)을 데리고 해남(海南) 소나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날 밤 순생(順生)이 와서 잤다.

22일(기유) 흐리다 개었다 했다. 저녁에 김애(金愛)가 아산(牙山)으로 부터 돌아왔다. 그는 임금 분부를 가져 온 사람으로 이달 초 10일 아산 집에 들러 편지를 가져 온 것이다. 밤에 비와 눈이 내리고 바람도 크게 불었다. 장흥(長興)있던 적이 20일 달아났다는 보고가 왔다.

23일(경술) 바람이 크게 불고 눈이 많이 내렸다. 이날 승첩(勝捷)한 징계를 썼다. 저녁에 얼음이 얼었다고 했다. 아산 집에 편지를 쓰자니 죽은 아들을 생각하여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다.

24일(신해) 비, 눈. 서북풍이 계속 불었다.

25일(계축) 눈.

26일(계축) 비, 눈. 추위가 배나 혹독해졌다.

27일(갑인) 맑음. 이날 장흥의 승첩 장계를 수정하였다.

28일(을묘) 장계를 봉했다. 무안(務安) 사는 진사(進士) 김덕수(金德秀)가 군량버 15성을 가져와 바쳤다.

29일(병진) 맑음. 마유격(麻遊擊 * 이름은 귀-貴)의 차관(差官) 왕재(王材)가 물길로 명나라 군대가 내려온다고 했다. 전희광(田希光 * 전서에는 田希元) 정항수(鄭鳳壽 * 전서에는 鄭鳳壽)가 오고 무안현감도 왔다.

[60] 12월

초 1일(정사) 맑고 따듯했다. 아침에 경상수사 이립분(李立夫 * 이순신-李純信의자)가 진에 왔으나 나는 배가 아파서 늦게야 수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며 종일 대책을 의논했다.

초 2일(무오) 맑음. 날씨가 매우 따듯하며 봄날 같았다. 영암(靈岩) 향병장 유장준(柳長春)이 적을 토벌한 사연을 보고 하지 않았으므로 곤장 50대를 때렸다. 윤홍산(尹鴻山), 김종려(金宗麗), 백진남(白振南), 정수(鄭遂) 등이 보러 왔다. 오후 10시쯤에 땀이 배었다. 북풍이 크게 불었다.

초 3일(기미) 맑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았다.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

초 4일(경신) 맑으나 몹시 추웠다. 늦게 김윤명을 곤장 40대를 쳤다. 장흥교생(校生) 기업(基業)이 군량을 훔쳐 실은 죄로 곤장을 쳤다. 거제 및 금갑도(金甲島), 천성(天城)이 타작(打作)에서 돌아왔다. 무안 및 전희광(田希光)들도 돌아왔다.

초 5일(신유) 맑음. 아침에 공로 세운 여러 장수들에게 상품과 직첩(職帖)을 나누어 주었다. 김돌손(金玆孫)이 봉학(奉鶴)을 거느리고 함평(咸平)지경으로 갔다. 보자기 수색을 책임진 정응남(鄭應男)이 새로 만드는 배를 검열할 일로 점세(占世)를 데리고 함께 진도(珍島)로 떠났다. 해남(海南)의 독동(禿洞)을 처형하였다. 전 익산 군수(益山郡守) 고종후(高從厚)가 왔으며 김억창(金億昌)이 오고 광주(光州) 박자(朴仔)도 왔으며 무안 나덕명(羅德明)도 왔다. 도원수(都元帥)의 군관이 유지(有旨)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선전관 편에 들으니, 통제사 이순신이 아직도 상제의 예법대로만 지키고 방편을 쫓지 않아 여러 장수들이 민망히 여긴다고 하니 사정(私情)이야 간절하지만 국사가 한창 바쁘고, 옛 사람의 말에도 전쟁에 나가 용맹이 없으면 효(孝)가 아니라 하였고, 전쟁에 나가 용감하다는 것은 소찬(素饌)이나 먹어서 기력이 곤비(困憊)한 자로서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라, 예기(禮記)에도 원칙을 지키는 경(經)이 있고 방편을 취하는 권(權)이 있어 꼭 원칙대로만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 경(卿)은 내 뜻을 생각하여 소찬 먹는 것을 치우고 방편을 쫓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울러 고기 반찬을 하사 하셨으므로 더 한결 감개무량했다. 해남의 강간 약탈 죄인들을 함평(咸平)이 자세히 심문했다.

초 6일(임술) 나덕준(羅德峻), 정대청(鄭大清)의 아우 응청(應淸)이 보러 왔다.

초 7일(계해) 맑음.

초 8일(갑자) 맑음.

초 9일(을축) 맑음. 종 목년(木年)이 들어 왔다.

초10일(병인) 맑음. 해(), 열(悅)과 진원(珍原)이 윤간(尹侃) 이언량(李彦良)과 함께 들어 왔다. 배 만드는 곳에 나가 앉았었다.

11일(정묘) 맑음. 경상수사(* 이순신-李純信) 및 조방장(* 배흥립-裨興立)이 보러 왔으며 우수사(* 이시언-李時言)도 왔다.

12일(무진) 맑음.

13일(기사) 간혹 눈이 내렸다.

14일(경오) 맑음.

15일(신미) 맑음.

16일(임신) 맑다가 늦게 눈이 내렸다.

17일(계유) 눈과 바람이 섞여 내려 차가웠다. 조카 해()를 작별했다.

18일(갑술) 눈이 내렸다. 새벽에 해는 어제 술이 채 깨기도 전에 배를 띄어 떠났다. 심회가 편하지 못했다.

19일(을해) 종일 눈이 내렸다.

20일(병자) 진원(珍原)의 어머니 윤간(尹侃)이 올라갔다. 우후가 교서에 숙배(肅拜)했다.

21일(정축) 눈이 내렸다. 아침에 홍산(鴻山 * 윤영현-尹英賢)이 목포(木浦)로 부터 보러 왔고, 늦게 배 조방장 및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가 크게 취해 돌아갔다.

22일(무인) 비와 눈이 섞여 내렸다. 함평 현감(* 손경지-孫景祉)이 들어왔다.

23일(기묘) 눈이 세 치나 쌓였다. 순찰사(* 황신-黃愼)가 진에 온다는 기별이 먼저 왔다.

24일(경진) 눈이 오다 개다 했다. 아침에 이종호(李宗浩)를 순찰사에게 보내어 문안했다. 이날 밤에 나덕명(羅德明)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머무르고 있음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니 한심하다. 오후 10시께 집에 편지를 썼다.

25일(신사) 눈이 내렸다. 아침에 열이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 병 때문이었다. 늦게 경상수사와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오후 6시께 순찰사가 진중에 와서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연해(沿海) 19 고을은 수군에 전속시키기로 했다. 저녁에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26일(임오) 눈이 내렸다. 방백(方伯)과 방에 앉아 군사 방책을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늦게 경상 수사와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27일(계미) 눈. 아침 식후에 순찰사가 돌아왔다.

28일(갑신) 맑음. 경상수사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비로서 들으니 경상 수사의 가지고 온 물이(* 이 아래로 「金仁秀」를 놓아 보냈다. 윤(* 이름은 알아 볼 수 없음)은 곤장 30대를 쳐 놓아 보냈다. 영암 좌수(靈岩座首)는 문초를 받고 놓아 주었다. 저녁에 두우지(杜宇紙), 백지, 상지(常紙) 아울러 50(* 이 아래도 글자가 지워져 알아볼 수 없음) 왔다. 오후 8시께 다섯 사람이 선두에 왔다고 하기에 시골 종을 보냈는데(* 이 아래도 지워져 있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거제(巨濟)의 망령됨을 가히 알겠다.(* 이 아래도 글자가 지워져 알 수 없다.)

30일(병술) 눈보라치고 몹시 추웠다. 배 조방장이 보러 왔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와 보는데 평산 만호와 영등(* 정응두-丁應斗)은 오지 않았다. 부찰사(副察使 * 홍이상-洪履祥)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이밤은 해가 다되는 그믐밤이라 비통한 마음이 더욱 더했다.

임진란 이후 7년의 전쟁은 무수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최후의 해가 되었다. 아니 총무공 자신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최후의 순간이 시기 시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총무공은 자기 한 몸을 던져 조국을 위기에서 영원히 살린 것이다. (역자주석)